

LG, AI 모델 ‘K-엑사원’ 공개… 세계 7위·국내 1위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서 우수성능 입증
평균점수 72점… 5개팀 중 최고점
‘고효율·저비용’ AI 생태계 저변 확대
오는 28일까지 API 무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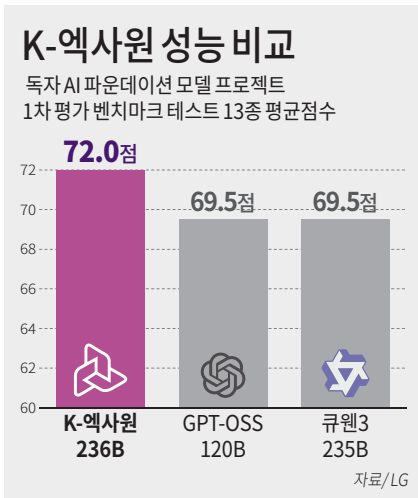
LG AI연구원이 인공지능(AI) 모델 ‘K-엑사원(EXAONE)’을 공개하며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패권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기준인 13개의 벤치마크 테스트 중 10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체 평균 점수도 72점을 기록해 5개 정예팀이 개발한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K-엑사원’은 32점을 기록해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세계 7위, 국내 1위에 올랐다.

현재 오픈 웨이트 모델 글로벌 톱 10



이 중국(6개), 미국(3개) 모델로 채워진 상황에서 ‘K-엑사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프라 상황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 1차수 K-엑사원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K-엑사원’은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 오픈 웨이트로

공개한 직후 글로벌 모델 트렌드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K-엑사원’은 미국 비영리 AI 연구 기관 ‘에포크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LG AI연구원은 2024년 ‘엑사원 3.5’를 시작으로 지난해 ‘엑사원 딥’, ‘엑사원 패스 2.0’, ‘엑사원 4.0’까지 국내 기업 중 최다인 5개 모델을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매년 AI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를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K-엑사원’은 LG AI연구원이 지난 5년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해 쌓은 기술력을 집약해 만든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단순히 데이터 양만 늘리는 방식이 아닌 성능은 높이고, 학습 및 운용 비용은 낮추는 고효율 저비용으로 모델의 구조 자체를 혁신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에서 검증된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고도화해 ‘K-엑사원’에 적용했다.

어텐션은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LG AI연구원은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특정 범위의 정보에 집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과 숲을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글로벌 어텐션’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고도화해 메모리 요구량과 연산량을 엑사원 4.0 대비 70% 절감했다.

LG AI연구원은 AI의 언어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큰라이저도 고도화했다. 토큰라이저는 AI가 이해하는 단위인 토큰으로 문장을 쪼개는 기술이다. LG AI연구원은 학습 어휘를 15만 개로 확장하고, 자주 쓰는 단어 조합은 하나로 묶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토큰라이저 고도화로 ‘K-엑사원’이 기존 모델 대비 1.3배 더 긴 문서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하나의 토큰을 처리하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는 멀티 토큰 예

측(MTP) 영역을 설계해 추론 속도를 기존 모델 대비 150% 높였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K-엑사원’은 효율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모델 설계를 통해 고가의 인프라가 아닌 A100급의 GPU 환경에서도 구동할 수 있다”라며, “인프라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도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AI 생태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오는 28일까지 ‘K-엑사원’ API를 무료 제공한다.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사양 인프라와 전문 코딩 지식 없이도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형 플랫폼(PaaS)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정규 LG AI연구원 에이전틱 AI 그룹장은 “‘K-엑사원’은 자원의 한계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 설계로 글로벌 거대 모델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지난해 1인당 GDP, 3년 만에 퇴보할 듯…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

(3만6107달러)

전년비 0.3% 줄어든 것으로 추산
경상GDP, 1.8조 달러… 0.5% ↓
22년 만에 대만 역전 가능성 커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가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에 더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대비 0.3% (116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의 뒷걸음질은 3년 만이다.

지난해 달러로 환산한 경상GDP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이다. 이 역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2025년도 경상성장률을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지난해 1인당 GDP가 퇴보하는 이미지.

3.8%로 추산했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의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654조180억 원이란 수치가 나온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을 적용해 미 달러화로 변환하고, 국가데이터처 집계 총인구

(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산출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839달러로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에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으로 3만7503달러로 반짝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에 따라 3만4810달러로 다시 퇴보했다.

작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달러 환산 GDP가 더 축소됐다. 환율은 전년 평균(1363.98원)보다 58.18원(4.3%)이나 올랐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1인당 GDP가 5년 만에 다시 3만7000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율이 작년 수준이라면 1인당 GDP는 3만7932달러로 예상된다. 환율이 1400원 선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3만8000달러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하순 제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달러는 원화에 비해 강세를 이어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T, 위약금 면제조치 후 ‘누적 이탈자 21만명’ 돌파

지난 10일 하루 이탈자 3.3만명
이탈 가입자, SKT 쏠림 현상
내일 면제 종료까지 이탈규모 정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지 두 번째 주말을 맞았지만, 가입자 이탈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적 이탈자 수는 이미 21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이탈자 수도 처음으로 3만 명 선을 돌파하며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하루 동안 발생한 번호이동 건수는 총 6만36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KT를 떠난 가입자만 3만3305명에 달한

다.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일일 이탈 가입자가 3만 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하권의 강풍과 악천후 속에서도 위약금 부담을 던 가입자들이 대거 유통망으로 쏟아져 나온 결과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흘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총 21만6203명이다. 지난 6일 1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20만 명 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 기록한 16만6000여 명의 이탈 규모를 이미 압도적으로 추월한 수치다.

이탈한 가입자들의 행선지는 SK텔레콤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누

적 이탈자 중 64.71%에 해당하는 13만9901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LG 유 플 러 스 로 는 4만8623명(22.49%), 알뜰폰(MVNO)으로는 2만7679명(12.80%)이 옮겨갔다. 10일 하루 기준으로도 SK텔레콤이 2만2193명의 KT 가입자를 흡수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강세는 과거적 인 재가입 인센티브 제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이전의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그대로 복구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장기 가입 혜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K



KT 본사 전경.

/KT

T 이탈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란의 중심에는 소위 ‘성지’라 불리는 유통망의 과열 경쟁도 한몫하고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로 앞두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 매출까지 등장했다.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 역시 기기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오는 13일까지 이탈 규모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